

업·계·소·식

중국에 브라운관, VTR공장 건설

(주)금성사

금성사가 총 2억달러의 자금을 들여 중국에 대규모 컬러브라운관 합작공장과 VTR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컬러브라운관 공장은 1억 7,000만달러의 자금을 들여 연산 100만개 규모로 호남성 장사에, VTR공장은 3,000만달러의 자금을 들여 연산 30만개 규모로 상해에 각각 세워진다.

금성사는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호남서광전자집단공사와 컬러브라운관생산 합작법인(호남금성서광전자유한공사) 설립계약을 맺은데 이어 상해에서 상해녹음기재창과 VTR생산합작법인(상해금성전자유한공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고속 디지털 전송장치 첫 개발

금성정보통신(주)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화선으로 별도의 중계장치 없이 영상과 같은 대용량 통신을 4km 까지 전송할 수 있는 고속 디지털 가입자 전송장치(HDSL)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전화선으로도 동화상이나 멀티미디어 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유선 TV, 영상회의 시스템, 홈쇼핑 등의 서비스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

다.

전에는 이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화선보다 특성이 우수한 통신선과 함께 1.5km간격으로 중계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된 고속 디지털가입자 전송장치는 1.544~2.048 Mbps급의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세탁기 제조기술 중국 수출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독자 개발 제품인 「공기방울 세탁기Z」의 제조기술을 중국에 수출한다.

대우전자는 중국 영구시에서 현지 북방우의 가용전기공사에 향후 5년간 6.6kg급 세탁기에 대한 설계·제조 기술 및 부품생산·조립·검사 등 관련기술 일체를 100만달러의 로열티를 받고 판매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이번 세탁기 기술 수출을 계기로 자사의 오디오 및 카오디오 공장이 진출해 있는 심천·천진 등지에 세탁기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자사 부품협력업체들의 중국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제품연구소 설립

대우전자 (주)

오는 2000년까지 총 3조~4조원 가량을 투입, 총 150여명의 석·박사 위주의 전자분야 연구인력을 모은 첨단 전자연구소를 서울 대우센터 빌딩내에 상반기중 설립, 운영키로 하고 해외 우수인력 등의 스카우트에 들어갔다.

사업비로는 올해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뒤 해마다 1~2천억



업·계·소·식

원 이상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배사장이 중장기 그룹 사업구상 검토결과 컴퓨터·가전을 비롯한 전자와 자동차 등 사업의 장래 경쟁력이 첨단 전자 관련 기술력에 달렸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단기적 영업실적에 연연치 않고 중장기 기술개발에 전념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연구기구의 조직은 제1연구소와 제2연구소로 이원화돼 있다.

제1연구소는 CDI(대화형 콤팩트 디스크)와 같은 복합미디어 외에 ▲ 세탁세제를 전혀 쓰지 않는 무세제 세탁기 등 차세대 가전제품 ▲ 와이드TV·프로젝션 TV 등 가정 극장(H첨단 CATV(유선방송) 장비·시스템 등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제2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국방기술 민수화 기관인 오라사로부터 도입한 고정밀 거울반사식 모니터 표시기술(AMA)의 응용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자동차 자동운행장치 외에 ▲ ABS(미끄럼방지 장치) ▲ EECS(엔진제어장치)등 다수 연구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천진 카오디오 공장 본격가동 대우전자(주)

대우전자가 300만불을 단독 투자한 천진공장은 높은 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사실상 힘든 카오디오 세계최대시장인 유럽시장을 비롯, 미주시장 등을 겨냥한

해외생산기지로서 설립된 것인데, 지난해 10월 1개 라인 시험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이번에 3개 라인을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대우전자 천진공장은 올해 60만 대를 생산, EU지역을 비롯해 북미, 중남미, 아시아 지역 등에 전량 수출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급확대와 함께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카오디오 내수시장에도 내년부터 적극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대우전자는 이 공장을 향후 2천년까지 세계최고 품질의 고급 카오디오 공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가동 첫해는 생산 및 품질 안정에 주력한 뒤 내년부터 CD, MD, RDS 등의 디지털 A/V 제품 및 카폰, 자동항법장치(Navigation System)등 첨단제품 생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에 고압변성기 공장 설립 두고전자(주)

두고전자(대표 고대수)가 홍콩의 무역업체 및 중국 심천지방정부와 협작으로 컴퓨터 모니터 및

TV용 고압변성기(FBT)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중국 심천에 설립했다.

두고전자는 홍콩의 모니터 및 컴퓨터 부품 수출입업체인 텐슨사 및 중국 심천정부와 협작으로 최근 자본금 250만달러 규모의 심천연방실업유한공사(Fibatronics)를 설립했다.

동사는 이 합작법인에 현금출자 대신 생산설비 4개라인을 공급, 1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홍콩 텐슨사가 70%, 심천정부가 15%의 현금출자를 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설비를 현지로 보내 현재 설비공사가 진행중이며 올 6월부터는 공장이 가동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동박적충판 해외판매

0·6·6·6·6 두산전자(주)

두산전자(대표 최종인)는 지난 달 28일 미국 합작사인 ASLS사와 자사가 생산하는 동박적충판의 해외시장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세계 동박적충판 시장점유율 14%를 기록했던 두산전자는 올해 들어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ASLS사는 자사의 생산공장이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전세계지역을 대상으로 두산전자의 동박적충판을 판매할 방침이다.

업 · 계 · 소 · 식

486급 노트북 PC 모빌라이프 시리즈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486급 노트북PC 「모빌라이프」 시리즈를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모빌라이프 시리즈는 SL25메가 헤르츠와 DX250메가 헤르츠급 2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486계열의 상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착탈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채택해 기동성과 보완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PCMCIA의 지원을 비롯, 일반 모니터(CRT)와 액정화면(LCD)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팩스 모뎀이 기본 장착돼 있다.

이들 제품은 이밖에 외부 모니터 사용시 102×768의 해상도와 2백56가지 다양한 컬러를 지원하며 메모리카드 등 각종 확장카드 접속이 용이해 손쉬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박마트리지스터 LCD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일본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고온 CMOS(상보성 금속산화막반도체)공정을 이용한 다결정 실리콘 컬러TFT LCD를 개발하는데 성공, '95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1년 개발에 착수,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캠코더의 뷰파인더(모니터창)에 장착되어 자연색을 표현해주는 10만 화소(색을 구성하는 점)급의 0.7인치 컬러TFT LCD로 그동안 전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이 제품은 특히 구동 회로를 석영 기판 위에 동시에 집적하는 첨단 제조방식을 사용해 공정수를 줄인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제품의 크기도 작게 할 수 있어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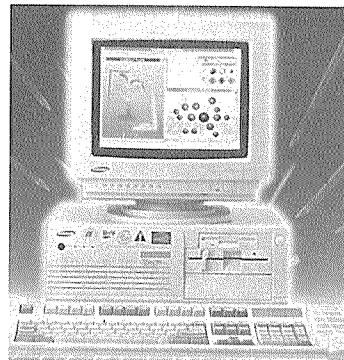
초집적 그린 PC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전력 절감기능이 없는 일반 PC에 비해서는 DX266메가Hz기준 89%, 일반 그린PC에 비해서는 42.9%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신형 그린 컴퓨터III 4개모델을 개발해 4월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2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신제품은 또 동물의 동면기능을 본뜬 하이버네이션 기능을 채택해 돌발적인 전원차단이나 정전시에도 작업중인 데이터를 원상대로 보존했다가 전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대로 복구해주는 기능이 내장됐다.

이 제품은 특히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신제품인 DX4채택시 칩교체만으로 사용전원이 3.3V로 자동전환되며 펜티엄칩 교체도 가

능한 등 향후 워크스테이션급으로의 성능 향상이 용이하다.



VOD 사업 진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가 금성사에 이어 VOD(대화형비디오서비스)사업에 진출했다.

삼성전자는 미정보고속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VOD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의 USA비디오사와 대화형단말기의 개발생산에 관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VOD대화형 단말기의 하드웨어개발 생산 판매를 담당하고 USA비디오사는 프로그램 공급에 필요한 메인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미 버지니아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될 VOD사업에 USA비디오사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공급하게 될 대화용

단말기는 전화선과 TV를 연결,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즉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장치로 향후 5년간 500만대의 수요가 예측된다.

선진부품 비교전시회 개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완제품의 품질 혁신을 위해서는 협력회사가 생산,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품질 개선이 긴요하다고 판단,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원공장 설내체육관에서 “선진부품 비교 전시회”를 개최, 선진부품과 국산부품의 품질수준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 임직원 8,000여명과 협력회사 임직원 6,000여명이 참관, 선진부품과 국산부품의 장단점을 현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국산 부품 전시회는 물론 국산전자제품의 품질과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참관자가 관심있는 부품을 직접 작동하여 봄으로써 부품의 품질이 완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부품 중 우수한 부품도 성공사례로 전시, 부품의 품질수준이 완제품 품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협력회사와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4배 줌 카메라 개발

삼성항공(주)



삼성항공(대표 이대원)이 세계 처음으로 렌즈 셔터(LS)형 4배줌 자동콤팩트카메라의 자체개발에 성공, 곧 시판에 들어간다.

삼성항공은 지난 9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20명의 연구인력과 3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세계 첫 4배줌 자동콤팩트카메라(제품명 FX-4)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38~140mm 4배줌렌즈와 퍼지 회로를 내장한 이 카메라는 일본이 시장에 내놓은 싱글렌즈 리플렉스(SLR)4배줌 카메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한단계 앞선 첨단 카메라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중·인도 3각 생산체제 구축

삼익악기(주)

삼익악기(대표 이호진)가 피아노·전자악기 등 고급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중·저가제품은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 분담생산

하는 국제분업화 생산체제를 확정했다.

동사는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피아노·현악기 등의 고급제품을 연간 4억달러씩 생산하고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1억 5,000만달러 및 1억달러씩 생산하는 3각 분업생산체계를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피아노와 기타 등 북양재 가공부품만을 생산해왔던 중국 하얼빈 삼익악기 유한공사에서 올해부터 피아노·기타 등의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PET 불투명 필름 개발 (주) SKC

SKC(대표 안시환)가 공중전화 카드 등의 재료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PET)백색 불투명 필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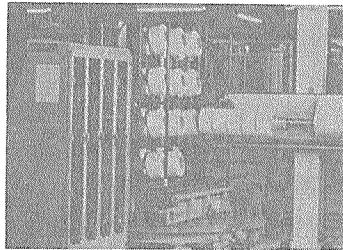
이 회사가 6년간 연구끝에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 PET필름에 티나늄 화합물 충진제 등의 화합물을 첨가, 제조하는 것으로 인쇄 특성이 우수하고 변색이 적어 공중전화카드를 비롯한 각종 선불카드 재료 및 사진 인화지·고급 포장지 재료 등으로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중전화카드·국철카드 등의 프리페이드 카드 시장규모만도 연간 2,100억원에 이르는 등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업·계·소·식

무인자동화 공장 가동
(주) 코오롱

(주) 코오롱은 25일 경북 김천에 일산 50t 규모의 나일론 초고속 방사원사를 첨단의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컴퓨터 통합 생산(CIM) 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92년 말부터 모두 540억 원을 들여 건설, 완공한 이 공장은 원사생산 운반 및 포장 입출고까지의 모든 공정을 로보트로 처리하는 완전자동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설계단계부터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의 에너지 사용으로 최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최저원가공장으로 지어졌다.

이같은 CIM 공장 준공으로 나일론 t당 생산에 소요되는 인력을 종전의 3분의 1로 줄이고 생산원가를 30% 가까이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합성 생산 공정의 특성상 작업자 교대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위성 이동통신망
사업 참여
현대전자(주)

현대그룹의 현대전자·현대종합상사와 데이콤 등 3개사는 미국 로럴사의 뉴욕 본사에서 이 회사가 주도해 추진중인 위성 이동통신망(사업명: 글로벌 스타) 구축사업에 8.3%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이 범세계적인 위성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스타계획은 지상 1,400km 상공에 소형 인공위성 48개를 발사해 세계 어느 장소에서나 이동전화·데이터 전송·무선호출·위치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를 '98년부터 제공한다.

총 사업 규모 18억 달러, 자본금 2억 7,500만 달러인 이 사업에 현대전자와 현대종합상사·데이콤 등 3개사는 전소시업 형태로 참여했는데, 지분 8.3%(3,800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80%, 데이콤이 20%의 비율로 투자하게 된다. 글로벌 스타의 주사업자로는 로럴 등 4개국 6개사가, 지역사업자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팩텔 등 5개국 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산주전산기 보급 500대
돌파 기념식 개최
한국컴퓨터연구조합

한국컴퓨터 연구조합은 지난 3

월 29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산주전산기 보급이 500대를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88년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로 선정된 주전산기 1 톨러런트를 국산화 생산하여 보급을 개시한 이래 만 6년 만에 600대를 넘어서는 폭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당초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사회 정보화에 필요한 중형 컴퓨터의 수요를 산업의 부자에 연계, 독자적인 중형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87년 6월 시작된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부족한 원천기술의 확보와 행정전산망의 조기 추진을 위해 미국의 모험기업인 톨러런트사의 이터니티 기종을 국산화 대상으로 선정, 기술을 도입하여 88년부터 국산화한 제품의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고유의 독자모델인 타이컴의 개발을 추진, 지난 '91년 7월 개발을 완료하고 92년부터 타이컴의 공급을 시작한 것이다.

기종별로 보면 92년까지 주력제품으로 되어 있는 톨러런트가 238대가 보급되었으며 92년부터 주력 기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타이컴이 265대 등 총 50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컴의 경우 92년에 첫해에 34대 실적을 나타낸 이래 '93년에는 무려 211대를 공급하는 등 급속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업체와 체신부에서는 금년에도 400대 내외의 타이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업·계·소·식



어 향후 주전산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산 주전산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금액기준으로 볼 때 중형급 이상의 범용컴퓨터 시

장에서 92년까지 5%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93년에는 20%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일기종으로는 타이컴이 국내 최대의 기종으로 등장하게 되

었다.

또한 금년 1월 개발완료된 주전산기 III기종이 상용화되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95년에는 제품성능 및 가격대비 성능비 측면에서 동급의 외국기종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위주의 공급에서 국내 민수시장은 물론 수출주력 제품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컴퓨터연구조합과 금성사, 대우통신, 삼성전자 및 현대전자 등 주전산기 공급 4사는 주전산기 보급 500대 돌파를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교통부 오명 장관과 송언종 전 체신부 장관, 체신부 경상현 차관 등 주전산기 사업초기부터 주전산기 사업에 참여한 관련인사 29명에 대해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원사명	창립연월일
골든콘 넥타 산업(주)	'84. 4. 1
동립통신(주)	'76. 4. 1
동원정공(주)	'71. 4. 1
보암산업(주)	'75. 4. 1
삼회전자통신산업(주)	'86. 4. 1
협진공업사	'68. 4. 1
성일정보통신(주)	'92. 4. 1
(주)한양전자콘트롤	'68. 4. 1
중앙전자공업(주)	'68. 4. 1
삼화전자공업(주)	'76. 4. 2
(주)삼정	'86. 4. 2

회사명	창립연월일
(주)기라전자	'87. 4. 3
(주)우진전자세라믹	'92. 4. 3
한국컴퓨터(주)	'74. 4. 4
신광전자(주)	'89. 4. 6
승용전자(주)	'76. 4. 7
(주)로케트전기	'46. 4. 8
효림기연(주)	'80. 4. 9
(주)비티씨코리아	'88. 4. 10
왕컴퓨터코리아(주)	'86. 4. 11
(주)코리아씨키트	'72. 4. 11
(주)코오롱	'57. 4. 12